

생활에 스며든 AI·IoT... '스마트시티의 미래' 엿보다

CES 2018 결산

관람객 20만명... 역대 최고 수준
 지난해 이어 '중국의 굴기' 재확인
 CTA의 미숙한 운영은 오점으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18'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생활상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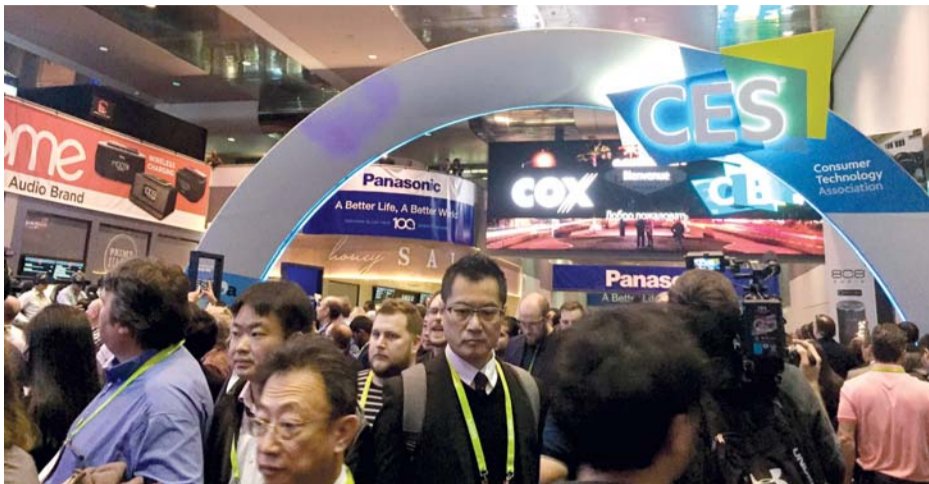
하지만 첨단 IT 기술의 경연장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올해 CES는 누수와 정전 사태 등으로 일부 기업의 전시가 중단되는 등 주최측인 소비자기술협회(CTA)의 미숙한 운영이 오점으로 남았다.

◆삼성·LG·현대차 활약 돋보여

CTA에 따르면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50여개 국에서 400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관람객은 20만명에 이른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핵심 트렌드를 'AI에 기반한 연결성'으로 정의하고, 자체 AI 플랫폼 '빅스비(Bixby)'를 가전에서 전자기기까지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연결된 IoT 기기들을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간단하게 연동·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은 이번 CES 전시장에서 빅스비를 중심으로 삼성의 혁신 기술이 자사의 모바일·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물론 제3자 기기와 앱을 어떻게 연동하고 제어하는지 상황별로 경험할 수 있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18'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전시장이 전시 참여업체 관계자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왼쪽)삼성전자 내 전시장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하만이 공동개발한 '디지털 콕핏'을 CES2018에서 시연하고 있다.



전시장이 전시 참여업체 관계자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왼쪽)삼성전자 내 전시장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하만이 공동개발한 '디지털 콕핏'을 CES2018에서 시연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또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마이크로 LED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모듈러 TV '더 월'에는 관람객이 몰리기도 했다.

LG전자는 CES 전시관 내 자체 부스의 1/3 이상을 AI 브랜드인 '씽큐(ThinQ)'로 채웠다. 씽큐군은 거실, 주방, 세탁실 등 소비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세탁실에선 음성인식으로 트윈워시를 비롯해 건조기, 스타일러 등이 서로 연동해 의류를 관리하는 모습을 주방에선 음성인식 냉장고와 오븐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에 맞춰 요리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며 AI와 IoT로 변모할 가정 내 모습이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AI를 탑재한 'LG 올레드 TV 씽큐'와 'LG 슈퍼 울트라HD TV 씽큐' 등 TV 라인업도 공개했다. LG의 독자 AI 플랫폼인 딥씽큐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TV는 물론 다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모습으로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의 차명과 제

원, 주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넥쏘는 차세대 동력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기술이 적용됐으며, 5분 이내의 충전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590km 이상(인증 전)의 항속거리를 구현한다. 전시장에서 넥쏘의 엔진 등 내부가 공개돼 있어 이를 보려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한 오로라와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오로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내 업계가 도달할 수 있는 레벨4(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스마트시티 내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AI·자율주행·로봇 시대가 눈앞에

이번 CES는 구글, 아마존, LG 등 AI 플랫폼 경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구글은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전시장 곳곳에 구글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구동하게 하는 명령어 '헤이 구글'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대대적으로 광고와

이벤트를 열었다. 이벤트 행사장에는 이를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마존은 전시장에 자사의 AI 플랫폼 '알렉사'로 연결된 '아마존 디바이스' 부스를 마련했다. 전구·플러그부터 로봇청소기·커피메이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와 협업한 제품들로 알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관계자는 "약 2만5000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알렉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CES에서 공개된 자율주행 기술은 5G를 기반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도요타가 선보인 박스 모양의 차세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이팔레트'(e-Palette)는 음식 배달부터 물건 판매, 차량공유 등까지 용도에 맞춰 제작, 활용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새로운 전기컨셉카와 A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시했다. 또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는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2.0'을 공개했다.

로봇은 이번 CES에서 중심의 한 축이

었다. 관람객의 귀여움을 차지한 소년의 애완견 로봇 '아이보', 혼다의 감정인식 로봇 '3E 로보틱스'(3E Robotics)를 비롯해 협동로봇, 교육용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이 주목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굴기'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CES에 참여한 중국 기업은 전체 참가 기업의 1/3 넘는 1379개에 이른다. 스마트폰 기업인 화웨이를 비롯해 하이얼·하이센스·TCL·창홍·스카이웍스 등 가전업체,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 드론의 DJI, 전기차 스타트업 '퓨처 모빌리티'는 등이 다양한 전시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CTA의 미숙한 운영은 이번 CES의 가장 큰 오점이었다. 개막일인 9일에는 쏟아진 비에 전장 곳곳에서 비가 새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전시장 내에 빗물 받는 통을 설치했으며, CES에 처음 참가한 구글은 전시장 오픈을 하루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0일에는 일부 전시장에 정전 사태로 두 시간 가까이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

은행, 올 中企 대출 크게 늘릴 듯

둔화 우려에도 견고한 4~5% 성장률
 정책적 지원에 中企중심 성장 가속화

올해 은행 대출 성장률이 중소기업대출 성장에 힘입어 견조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정책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4분기 프리뷰(Preview)-2018년 이익 개선 가능성 확인 기대' 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은행 대출 성장률은 4~5%의 견조한 수준을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대출 성장 중심이 중소기업 대출로 이동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정책 기조에 의한 정책적 지원이 이런 중소기업중심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 이유에서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및 이에 따른 은행 간 성장 차별화도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높은 자본 비율의 대형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중심 성장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은 RWA(위험가중자산)관리 필요성에 의해 낮은 가중치의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KB·신한·하나 등 3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까지 연초 대비 8.3%의 중소기업대출 중심 성

〈예금은행 대출 성장률〉 (전분기대비, %)

	4Q16	1Q17	2Q17	3Q17	4Q17
가계대출	2.9	0.8	2.4	2.5	2.3
주택담보	2.9	1.0	2.1	2.0	1.6
가계일반	2.7	0.2	3.3	3.8	4.5
기업대출	(1.0)	1.8	0.7	1.9	0.3
대기업	(5.7)	2.1	(3.3)	0.4	(2.4)
중소기업	0.3	1.7	1.8	2.3	1.0
총 대출	0.8	1.3	1.5	2.2	1.3

참고: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자료=한국은행, 삼성증권 추정

장을 보인 반면, 자본비율이 낮은 BNK·JB금융의 성장의 축이 여전히 가계대출에 머물렀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성장엔 NIM(순이자마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 NIM은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대출 구성의 변화로도 개선될 수 있다"며 "작년부터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안이자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증가 속도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주담대에 비해 크게 높은 만큼 중소기업대출 비중 상승은 대출 전체의 가중평균 금리를 높여주게 되고, 이는 NIM 상승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금리 상승도 추가 NIM 회복을 가능케 해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책적·경쟁적 요인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과도한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신동빈,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성화봉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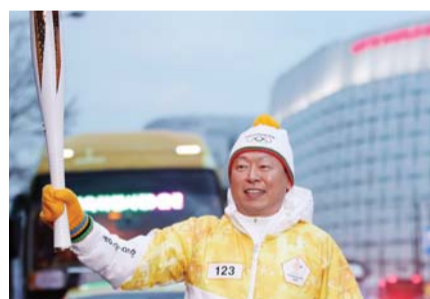
〈롯데그룹 회장〉
 10대 그룹 회장 중에서 첫 주자
 잠실 일대 '올림픽 홍보존' 조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다.

신 회장은 1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약 200m 구간을 성화봉송 주자로 달렸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스키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이 성화봉송 주자로 달리는 잠실 일대는 롯데에 의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존'으로 조성됐다.

지난달 10일부터 롯데는 평창동계올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서울 둘째날인 14일 오후 성화주자로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원에서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픽조직원회와 함께 국내 초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모두 2만6000개의 LED 조명을 활용해 평창 평화 불꽃을 밝힌 바 있다. 건물 외벽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모습, 응

원 문구와 스카스케이트 등 경기 모습 등을 연출하고 있다.

롯데는 자체 유통시설 전체를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존으로 만들었다.

전국의 롯데백화점 점포를 평창동계올림픽 콘셉트로 구성하고,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영업장에 올림픽 홍보부스와 포토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한스키협회장에 취임한 신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스키협회에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지앙 프랑코 카스파 회장, 사라 루이스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평창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삼성전자, 모듈러 TV '더 월' 41개 상 휩쓸어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회의(CTA)로부터 36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으며, 매년 글로벌 유력 매체들이 CES 전시제품 중에 선정해 수여하는 상 80개까지 총 116개 CES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마이크로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인 146인치형 '더 월(The Wall)'은 'CES 혁신상'을 포함해 무려 41개의 상을 휩쓸었다.

더 월은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 IT전문매체 BGR 등으로부터 'CES 최고상'을 받아 단일 제품으로는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강화된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360도 회전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노트북 펜(PEN),



CES 2018 기간에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 /삼성전자

8K 화질에 AI 기술이 탑재된 새 QLED TV, 신개념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 등도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 /정은미 기자